



월성원자력본부 **윤재황** 방재환경부장

‘걸어다니는 문화재 교과서’

24년간 문화유적 해설가로 활동

마이크 달고 인연 닿는대로

“불교의 우주관으로 보면 우주 중앙에는 부처님이 사는 거대한 수미산이 있고 수미산 남쪽 끝 염부주라는 곳에 우리가 사는 사바세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세계의 경계가 바로 일주문입니다. 우리는 아직 사바세계에 있지만 좋은 산사에 오셨으니 저 안에 들어가 모든 진리를 깨달은 부처님을 꼭 만나셔야 합니다.”

11월 3일 경주 기림사 일주문 앞 불교의 세계관을 펼쳐놓으며 부처님을 만나러 가자고 부추기는 이는 바로 (주한국수력안전력 월성원자력본부 윤재황) 방재환경부장이다.

원전 주변지역 해안관련 민원과 환경업무 총괄하는 책임자이지만 1982년부터 24년간, 휴일이면 경주의 산과 들을 다니며 조상들의 찬란한 문화유적을 만나고 그에 얽힌 유래와 사연을 공부하며 방문객들에게 알려오고 있다. 그런 탓에 회사 안팎에서 ‘걸어다니는 문화재 교과서’로 불리는 그가 오늘도 짬 내 기림사 안내에 나선 것이다.

목에 미니마이크까지 착용한 채 단체 손님들을 안내하기도 하지만 보통은 경주 곳곳을 회차회차 다니다가 인연이 닿는 대로 다가가 해설을 한다.

다음날인 4일, 윤 부장은 안압지에서 아이들 셋을 데리고 교육차 경주관광을 온 경기도 성남시 분당 아주머니를 만났다. 그런데 아주머니는 대롱과 침성대, 안압지를 둘러봤다며 다음날 아이들과 수영장에 갔다가 집에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경주의 역사문화유적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고 판단한 윤 부장 특유의 질문공세와 설명이 이어진다.

“분당엔 수영장이 없습니까?” “있는데요.”  
“그럼 볼거리는 있습니까?” “없는데요.”  
“감은사지네요? 사천왕사지는 있습니까? 멀리 경주까지 왔으면 분당에 없는 것을 보고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결국 아주머니가 수긍을 하자, 윤 부장은 지도에 예쁜 그림까지 그려주며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향가 14수중 도솔가와 제망매가를 지은 월명 스님이 주지로 있었던 사천왕사지를 소개했다. 비록 지금은 허허벌판이지만 월명 스님이 피리를 불면 달조차 쉬어갔다는 곳이라고 부연설명하면서, 우리의 우수한 역사문화를 전하는 동시에 세상을 보는 지혜의 눈도 띄어 주는 윤 부장의 무애행은 늘 이런 식이다.

불교설화 결집인 구수한 입담

윤 부장이 문화재 해설을 하는 동안에는 수많은 관광객들이 따라붙는다. 불교설화를 더한 윤 부장의 구수한 입담에 낚고 오래된 볼락이 문화유적들이 되살아나는 재미가 쏠쏠하기 때문이다. 한번은 전문 가이드를 대동하고 온 단체여행객이 자신의 가이드는 제쳐두고 따라다니며 설명을 들은 후 어느 여행사에서 온 가이드인지를 묻는 통에 난감했던 적도 있다.

이렇게 윤 부장의 안내는 어딜 가든 인기가 최고다.

동료직원들은 역사문화해설과 어울리지 않는 원자력발전소 직원이 설명하기 때문일거라는 진단을 내렸다. 이와함께 유적지 소개에 너무도 잘 어울리는 뚝배기같은 풍성한 윤 부장의 외모 때문일지도 모른다는 말도 덧붙였다.

그러나 무엇보다 설득력 있는 주장은 윤 부장이 물리학과를 전공한 이공학도 출신이라는 것이다. 수식으로 세상을 보고 모든 이론들을 증명해 체계화 구조화시키는 것에 익숙한 윤 부장이 우리의 역사문화도 같은 방법으로 체계화 구조화시킨 탓에 일반 정보들을 무조건 받아들이는 문화유적해설사와는 다른 독특한 설명을 한다는 것이다.

실제 윤 부장은 <삼국유사>와 <삼국사기>가 너털너털 해질 정도로 수없이 읽으며 공부했고, 다양한 관련 서적을 살피고 세



경주 기림사에 찾은 관광객들에게 불교의 세계관과 함께 문화재를 소개하는 월성원자력 윤재황 부장(사진 맨오른쪽).

“역사 알리고 포교하니信합니다”

미나에 참석하며 금강증을 풀었다. 기초 교리와 불교설화까지 공부하며 나름의 체계를 세웠다. 2004년에는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주관하는 박물관대학을 수료하고 영구회원이 됐다. 지난 4월에는 박물관대학을 나온 이들과 신라옛길답사회를 만들어 월1회 옛 신라의 길을 찾아 나서기도 한다. 재미있는 것은 부인 최팔옥(52)씨도 윤 부장보다 앞서 박물관대학을 수료한 후 문화재해설을 하고 있다는 것.

신라옛길답사회·반야회 창립

“저는 집사때문에 먹고 삽니다” 부인 이야기를 묻자 대뜸 이렇게 답하는 윤 부장은 언제나 부인의 지혜를 높이 산다. 윤 부장의 모든 활동이 최팔옥씨로부터 비롯됐기 때문이다. 신심 돈독한 최팔옥씨는 1988년 월성원자력본부에 마야부인회를 창립한 장본인이다. 지금도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당시 마야부인회는 300여 직원 중 45명의 부인들이 활동하는 대단한 신행단체였다.

활약 또한 대단했는데, 정기세벽기도를 갖고 기림사 신도회의 기본 틀을 만든 것은

물론 바자회 수익금으로 2박3일의 어린이 여름불교학교도 열었다. 평소 자상하던 윤 부장은 부인의 ‘운전기사’로 활동하면서 불자가 저절로 됐다.

그러나 무난한 불자인 여느 불자와는 활동이 달랐다. 1994년 9월 불의의 사고로 팔을 잃은 슬픔을 딛고 불교에 귀의하려는 발전소장의 제안을 받아 18명의 정예회원으로 월성원자력발전소 불자회인 반야회를 창립했던 것.

‘삼귀의’ ‘반야심경’도 할 줄 몰랐지만 총무로 법회를 이끌어왔기에 부인의 도움으로 법회 식순과 반야심경을 배우고, 찬불가 테이프도 구해 듣고 또 들었다. 회원들에게도 가르쳤다. 불교기초교리며 천수경 등 불교서적과 경전을 읽기 시작했다. 참으로 무모했지만 진심으로 열과 성을 다 했다.

지금 반야회는 회사의 배려로 법당까지 여법히 갖춘 불자신행회의모습을 갖추고 윤 부장은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윤재황 부장이 역사문화유산에 특별한 열정을 갖게 된 것도 이 무렵이라고 밝혔다. 어린이절부터 유독 국사를 좋아했고,

경주에 온 이후 주말마다 문화유적을 찾아 다녔지만 별 감흥이 없었다. 그러다 1994년 정토행인회 경주 법사로부터 경주 동남산 감실부처 부처바위에 대한 해설을 듣고 역사문화유적에 매료됐다. 윤 부장은 지금도 동남산 감실부처와 부처바위 망덕사지, 사천왕사지 등 경주 동남산 지역을 가장 즐겨 찾는다. 그리고 역사문화유산에 녹아있는 부처님의 가르침과 삶의 지혜를 전하려고 늘 노력한다.

직장내 민원해결사 역할도 ‘특독’

남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는 ‘역지사지(易地思之)’를 삶의 좌우명으로 삼으며 살아온 윤 부장. 요즘 직장내에서 탁월한 민원해결사로서도 유명하다. “분별심을 갖지 말라는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누구를 만나든 분별하지 않고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대한다면 무슨 일이든 잘 해결될 수밖에 없다”는 윤재황 부장은 퇴직 후엔 부인과 함께 전업 문화유산해설사로 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할 것이라며 소박한 웃음을 지었다.

글=배지선 기자·사진=백재현 기자



윤재황 부장은 목에 마이크를 달고 문화유산 해설을 할때 가장 행복하다.

현대불교신문 창간 12주년 기념

건강용품 특별할인판매

희담석 건강용품 사은대찬치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건강품



희담석 염주세트

38,500원 (염주, 합장주, 염주 주머니)

· 크기 : 직경 10mm

희담석 108염주 흡사기법 / 희담석 합장주 증정 / 희담석합장주(날개) 1만원

희담석 염주는

- 아개 걸림 등으로 고생하시는 스님
- 목과 팔목이 늘 빠근한 보살님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있는 청년불자들이 수험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희담석 활용 100% 활용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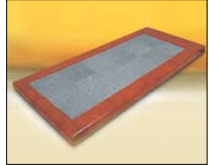
희담석(염주, 합장주)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목에서 잠시(약 1분정도) 내려놓으세요. 목에서 분리된 희담석은 그때까지 희담석이 머금고 있던 물의 나쁜 기운을 내뿜은 후 원래의 희담석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 희담석(稀潭石, Batu Hitam)이란?  
희담석은 용암과 함께 분출된 부기불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굳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주민들이 예부터 지독한 열로 사용하던 것을 원주민의 전통신앙을 통해 불교를 통해 인체에 유익한 에너지가 가진 것임을 알았다고 합니다. 희담석은 생명과 활력이 넘치는 생명에너지의 잉여물이 됩니다.

희담석 보로 (싱글)

4,000,000 → 3,200,000원 (20%할인)

· 희담석 사이즈 (700mm×1800mm×30mm) · 보로 사이즈 (1000mm×2200mm×100m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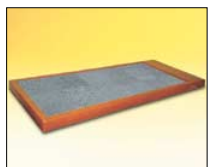
■ 제품설명 : 희담석 중 원리외의 진과 양이 최고인 재료만을 엄선하여, 수면 시 자연스럽게 활력을 높일 수 있게 제작한 명품입니다. 대부분 돌침대 원석의 두께가 1cm ~ 2cm 정도인데 비해, 희담석 돌침대는 영구 사용을 위하여 3cm 두께의 원석을 사용하였습니다. 특장은 에너지 방사능으로, 침대 커버나 두꺼운 요를 깔고 사용하셔도 에너지 투과력이 높고 수면시 에너지를 충분히 보충하실 수 있습니다. · 보로 : 천연고급가죽

사은품 : 희담석 방석

희담석 보로 (보급형)

2,800,000 → 2,240,000원 (20%할인)

· 희담석 사이즈 (600mm×1500mm×30mm) · 보로 사이즈 (900mm×1900mm×100mm)



■ 제품설명 : 수면 시 자연스럽게 에너지의 활력을 높이고 각종 질병 등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제작한 제품입니다. 보급형 보로는 이만한 사이즈로 스님들의 좁은 수험처에 설치하기 적합합니다. 좌선용으로 활동 시간이 적어 신체대사가 원활치 못한 스님들의 신체 활성에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장은 옥(玉)등 타 재료의 경우 상온(常溫)에서의 파장은 극히 미미한데 비해, 희담석은 파장의 투과력이 높아 침대 커버나 두꺼운 요를 깔고 그대로 투과하므로 상온에서도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으며 40℃ - 60℃의 온도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보로 : 천연고급가죽

사은품 : 희담석 찜질팩 + 희담석 허리띠

※ 수도권 배송비 무료, 지방 배송비 별도

보이차

희망 3,000원 이상에 구매하신 고객은 이별보옥 (2천원)



희망의 보이차를 고급자사포와 함께 할인된 가격에 만나보세요

특별할인가 600,000

→ 500,000원

· 구성 : 보이차 14원, 자사포

보이차는 모두 수작업으로 제작하여 찜기나 쓰지 않은 최고급 보이차입니다.

보이차 아샘지 : 은남성의 서북지방(고리공성)으로 서쪽으로는 '티벳', 동쪽으로는 '상그리'가 인접한 험한 산악지형으로 매우 청정한 지역임

■ 수입원 : ㈜흥대원  
흥대원의 보이차는 식약청의 검사를 통해 적수입하고 있습니다.

자사포

보이차의 자사포는 이삼 정선에 위치한 황용산의 홍니만을 사용하여 직접 작가에게 주문 의뢰한 직물로 순수한 자사의 원료로 만듭니다.

· 크기 : 지름 29cm, 높이 37cm

· 종류 : 담녹색, 황도색



주문 전화

현대불교신문사 영입팀  
[국민은행] 006-25-0023-989  
(주)현대불교신문사

02)2004-8213  
2004-8215